

권두언

한·일갈등의 뿌리

조정남



한·일갈등의 뿌리

조 정 남 한국민족연구원 원장

한·일갈등의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줄기와 뿌리들을 찾아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원인의 추적 작업에서는 흔히 그것들의 진정한 원천으로 자리 잡은 내재적인 갈등 요인을 놓치기 쉽다. 이 글은 이러한 한일갈등의 개별적인 내용과 원인을 찾아들기 전에 그들 간에 오래전부터 내재되어온 의식갈등의 원류를 추적, 이번 호 특집 개별 내용들의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한국과 일본, 일본과 한국만큼 얽히고설킨 양국관계도 드물다.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지도 않으면서도 수많은 마찰을 거듭해 왔고, 직접 지배하거나, 지배당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타력으로 지배와 복종 관계를 청산하고서도, 여전히 서로 간의 경쟁과 시샘, 견제와 교류를 공존시키고 있는 양국. 이들 두 나라가 최근 과거 일제에 의한 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직접적인 계기로 다시 전에 없던 갈등과 긴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최근 형성된 한일 간의 긴장이 한고비를 넘긴 듯하나, 여전히 수면 아래서는 그 치열성을 낮추지 않고 있음이 현실이다. 일제의 한인 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로 빚어진 한일 간 긴장의 핵심적 쟁점은 배상 판결이 1965년에 이미 체결된 한일협정에 위배 된다는 일본 측과, 당시의 협약사항이 정부 간 배상 책임의 종결이기는 하나, 이는 개인들의 개별적인 배상 책임까지를 면책하는 것이 아니라는 한국 측의 반발이 그 주된 내용이긴 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외형적이고 표피적인 명분이고, 그 내면적인

실체는 한일 간에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복잡한 갈등적인 요인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현재적 한일갈등의 내면 깊숙이 상존하는 본원적인 갈등 요인들을 의식갈등의 뿌리에 초점을 맞춰 다음 몇 가지로 단순화해서 살펴려 한다.

첫째, ‘패배의식의 내재화’가 한일 갈등구조의 주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한일 양국민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있는 패배의식이 양국 간 갈등을 만들어 내는 원천의 하나다. 한일 양국은 하나같이 역사적으로 상대국으로부터의 ‘패배’의 경험을 가지고, 그러한 패배의식의 완전한 극복을 이뤄내지 못한 데서 오는 상대국에 대한 긴장감과 내면적인 두려움이 그들 정부나 민중들의 의식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한일갈등의 뿌리로 작용하는 것이다.

한국은 역사상 최대의 패배라고 할 수 있는 일제에 의한 식민지 경험의 트라우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많은 시간이 경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과의 대면 장면에서는 그것이 어떤 분야 어떤 사안이든 간에 가장 먼저 과거 식민지 피지배에 대한 기억과 함께 이에 대한 양갈음 의식을 나타내지 않을 수가 없다. 때문에 한국인들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건널 수 없는 강 줄기를 언제나 가슴 속에 존치 시키면서, 그 강을 건너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교류와 대화의 관계를 설정하려 한다. 일본제 일용품을 즐겨 사용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애착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난다. 일본이 번안했거나 만들어 낸 언어, 문자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일본이 만들었거나, 일본에 의해 소개된 개념인 것을 거부하거나 애써 무시하려 한다. 일찍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면서 근대화 작업을 선행한 일본이 먼저 개발한 여러 가지 근대적인 사고, 기준, 개념들이 여타 동양권에 자연스럽게 전파되고, 여기에는 한국도 예외일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함에도, 일본의 뿌리를 만드는데 한반도가 기여했던 과거만을 강조하고, 일찍 근대화한 일본으로부터의 문화 유입은 애써 부인하려 한다. 이것은 다분히 한국이 가지는 일본에 대한 패배의식에서 만들어진 대항심리에서 기원한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한반도)에 대한 깊은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은 마찬가지다. 지금도 일본정부가 일본인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패배의식의 내재화 정도는 생각 이상으로 크고 깊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對韓 관계에서 경험한 대표적인 패배는 두 차례라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오래전의 白村江 전투에서와, 또 하나는 1592년부터 시작되었던 임진왜란에서의 패배가 그것이다. 일본국 건국 전인 663년 왜(倭)가 백제와 연합한 羅唐 연합군과의 전투는 사상 첫 외국과의 본격적인

전투로, 이 전투에서의 패배는 일본의 건국과 대외개방을 결과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지만, 그것이 가져온 패배의 충격은 대단했다. 그리고 이 전쟁 패배에 대한 기억은 그 후의 일본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잊혀지지 않은 치욕적 상처로 내재 되어 왔으며, 그것이 가져다준 여러 가지 결과물들에 대한 수용(渡來人, 외래문화의 급속한 유입)과 함께 이의 일본화 작업의 필요성을 강요시켰다. 두 번째의 패배는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이어진 임진왜란에서의 패배였다. 개별전투에서 서로가 승리와 패배를 거듭하면서 이어온 이 싸움에서도 결국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진주성 대첩’ 등으로 이어지는 ‘3대 대첩’을 거치면서 결국 일본은 패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위의 두 차례에 걸친 對韓戰에서의 패배는 1948년8월에 있는 태평양전쟁 패배로 1910년부터 시작된 한반도의 식민지배가 타의에 의해 종식됨으로써, 다시 한번 對韓 패배의식을 뇌리에 되새길 수밖에 없었다. 진주만에 대한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태평양전쟁은 일본 제국주의의 세력이 총력을 기울린 사활적인 도발이었으며, 총력전이었기에 1945.8.15일의 패배선언은 단순한 한 전쟁의 패배 이상의 충격이자 절망이었다. 그리고 일본으로서는 이 패배를 통하여 가장 커다란 손실감을 맛본 것이 바로 ‘한반도의 상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배가 갖는 對韓 패배의식의 또 다른 뿌리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또 현대 일본의 왜곡된 정체성을 만들어 낸 살아있는 상처이기도 했다.

이렇듯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백촌강, 임진왜란, 거기에 더해 태평양전쟁에서의 패배와 그것이 만들어 낸 패배의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역사상 존재했던 과거사가 아니라, 다시 세계적 강국으로 일어난 현재의 일본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는 마음속의 아픈 기억이자, 한시도 잊지 못할 일본과 일본인들의 잠재적인 초조와 불안감의 발원 점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오늘날의 일본은 강력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하며, 화려하면서도 초라하고, 부유하면서도 여전히 궁핍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 패배의식은 탈냉전의 현금의 국제정세 아래서도 일본과 일본인들이 국제사회나 대외관계에서의 그들의 처신을 뒤흔치지도, 자주적이지도 못하게 만들고, 항상 과거지향적이며 대외의존적이며 종속적으로 왜곡시키고 있기도 하다. 최근의 한일갈등 관계에서 보이는 일본의 태도 또한 이 같은 그들 특유의 패배의식과 무관치 않음은 물론이다.

둘째, 한일 갈등구조의 내면에 존재하는 상충적인 또 하나의 측면이 바로 ‘우월의식의 대립’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너보다 우월하며, 우리 민족이 너희 민족보다, 우리나라가 너희 나라보다 우월’하다는 논리가, 팽팽한 긴장으로 양국 사이에 계속되어왔고, 바로 이 같은 우월의식이 결과적으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한일 갈등구조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주요한 뿌리로 자리 잡고 있다.

먼저, 한국의 경우는 예부터 중국에서 전래 된 대륙 문화가 한반도를 경유하여 일본열도로 건너갔기 때문에, 일본문화의 뿌리가 상당 부분 한반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기에 이에 대한 우월감은 당연하다. 그리고 문화 뿐 아니라, 고대 특히 백촌강전투 이후 수많은 백제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갔으며, 이들 소위 ‘渡來人’들이 일본국 건설의 실질적인 주역이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인이라는 인간집단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渡來人’ 즉 한반도 출신들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기원적인 측면에서의 우월성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일본 천황가의 역사에서도 한반도의 존재는 역사학계는 물론 직전 천황 스스로가 직접 인정한 사실이기에, 이것이 가지는 한국의 우월의식은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강력하다. 일본에 대해 한국인들이 갖는 우월의식의 또 하나는 IT 반도체 분야 등의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일본 추월 현상과도 깊이 관련된다. 특히 전자제품 생산에서 한국의 삼성이 일본의 소니를 앞지른 것으로부터 시작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영역에서의 일본 추월은 점점 격차를 넓혀가면서 한국의 우월의식을 배증시키고 있다. 한국이 가지는 일본에 대한 우월의식의 정점은 지리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은 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약점을 가진 것에 더해, 빈번한 지진과 지반침하의 계속 등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취약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연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일본열도가 갖는 취약성에 대해 한국이 갖는 상대적 우월감도 부인키 어렵다.

일본 또한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우월의식은 한국의 그것에 비해 결코 덜하지 않으며 오히려 훨씬 넓은 영역에서 커다란 무게로 자리 잡고 있다. 먼저, 일본은 근대 문명의 전파자로서의 우월적 위치에서 한국은 그들을 따라 배우거나 모방한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서구의 문물을 일찍 받아들이고 발전시켜온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앞선 산업화를 이뤄냈고, 여기서 더 나아가 그들이 획득한 선진 기술 문명을 여타 동양권으로 전파하고 보급 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산업기술 영역뿐 아니라 근대적인 정신문화의 수용과 발전에서도 동양권에서 일본은 앞장 서 있었으며, 각종 근대적인 개념이나 이론 또한 가장 먼저 번역하고 재정립하여 이를 동양권으로 전파하고 전승하는 전승국의 역할을 수행, 그 대상은 한반도는 물론 기존 동양문명의 발상지이자 종주국이던 중국에까지 미쳤다. 제2차대전 패배 후에도 일본은 전후의 비무장 원칙을 자국의 경제발전의 발판으로 하여, 폐허 상태로부터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뤄내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 짧은 기간 내에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비약했고, 세계 정상급의 기술 강국으로서의 능력도 갖추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첨단 기술력의 확보와 유지의 후발 산업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모방의 대상이자 경계의 대상이기도 했기에, 바로 이 같은 면에서 일본이 가지는 우월의식의 실질적 토대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는 우월의식의 또 하나의 측면은 그들에 의한 한국의 식민지배였으며, 이는 그들의 가지는 우월의식의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다. 1910년 을사보호조약으로 시작된 일제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는 태평양전쟁 패배 후 한국의 독립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다. 한반도 지배를 위해 조선총독부를 설치, 명실상부한 내선일체를 달성키 위한 갖가지 동화정책을 펼쳤고, 드디어는 한국인을 ‘日本國民’화하여 국가, 국민, 영토 모두를 일본화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제의 식민통치는 광복 이후에도 완전히 불식되지 못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남아 있다. 패전으로 식민지 한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본으로서는 일제로부터의 독립 한 후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등장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도 한때 식민지 지배국으로서의 강한 우월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우월의식은 역사적으로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더하여, 현재 한국이 여러 영역에서 일본 식민지배의 잔재가 여전히 범람하고 있는 현상에서 더한층 힘을 받고 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은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가깝게 느끼는 ‘近親性’을 공유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같은 근친성이 양국관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갈등의 뿌리로 작동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매우 가까운 나라다. 인종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역사적, 인종적으로 서로가 근접해 있을 뿐 아니라, 그것에 기반을 두고 양국이 제반 분야에서 서로가 껍 닳아 있는 보기 드문 이웃이다. 한일 양국이 가지고 있는 이 같은 가까움은 두 나라가 일반적인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 이상으로 서로를 혈연적인 친족관계로 마져 인식하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서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한 사이가 늘상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사이로만 존재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가까운 한국과 일본의 사이도 바로 이 같은 근친성에서 상호 간의 평화로움보다는 ‘사촌이 논 사면 배아픈’식으로 그것이 가져오는 갈등적인 측면이 더욱 두드러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일 간 서로가 서로에게 껍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인식 자체가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 이상의 바람이나, 기대 이상의 대접을 바라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 됨과 동시에 항상 일반적인 국가와 국가, 국민과 국민들 사이에서 보다 훨씬 더한 상대방에 대한 시샘과 경쟁적인 심리를 배양시키는 환경도 만들어 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근친성에 대한 한국의 집착도 만만치 않다. 주로 역사적, 지리적 접근으로 이뤄지는

일본에 대한 한국 측의 입장은 대단히 오래되고 끈질긴 것이기도 하다. 먼저, 역사적으로 일본은 한반도에서 흘러간 사람과 문물에 의하여 성립된 나라로써 한일관계에서 한국이 원류와 같은, 혹은 형과 같은 혈연적인 친근성을 가진 나라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또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일본열도는 원래 한반도와 연결된 땅이었으나, 그 후 지진 등 지각 변동의 결과로 떨어져 나간 즉 한반도라는 모체로부터 분리 이탈된 섬나라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열도의 모태는 한반도이며, 그렇기에 일본의 고향은 한반도라는 것이며, 그만큼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는 모자와 같은 근친성, 본류와 방류와 같은 동근성으로 규정 지을 수 있기에 일본은 한국보다는 부족하고, 뒤떨어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한반도는 일본에 대륙의 문물을 전해 준 전달자이며 한국을 통하여 다양한 문화, 기술, 종교 등이 일본으로 전파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일본의 여러 가지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렇듯 제반 영역에서 한반도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남다른 가까움과 친밀성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일간에 만들어진 근친성이 오랫동안 한일 양국관계의 발전과정에서 만들어 낸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즉 부정적인 저주의 요인으로 더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그의 연장선상에서 현금에 나타나고 있는 양국 간 갈등구조의 내면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뿌리로 파악할 수 있다.

근친성의 저주를 먼저 발동시킨 것은 제국일본에서 였다. 일본은 한반도 강점기에 이른바 ‘日鮮同祖論’이라는 것을 조작하여 그것으로 그들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하려 했다. 한반도의 고대 민족 즉 韓人은 일본인들의 선조들이 사용하던 彌生 토기를 사용한 집단으로 일본의 고사에서 韓人으로 지칭된 인종집단이라는 것이며, 일본인의 선조인 倭人と 한반도의 선조인 韓人은 같은 부류라는 것이 일제에 의해 조작된 일선동조론의 출발이다. 이들 천손민족론자들은 고대 일본열도 주변이 잡다한 민족적 요소가 천손민족으로 동화 융합되어 황실을 종가로 받드는 민족집단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결국 천손민족은 잡다한 민족집단을 포괄한 복성민족이며, 이런 입장에서 보면 제국주의정책을 통한 일본의 이민족 지배는 이미 과거에 형성되었던 천손민족적 관계의 회복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는 “우리 민족과 조선 민족은 본래의 요소가 같았을 뿐 아니라, 서로간의 통합과정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같은 민족이라고 봐도 틀림없다”는 植原和郎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일선동조론에는 위의 천손민족론 이외에도 도래인설, 기마민족설, 혼혈설 등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본인들의 원류를 설명하는 내용은 하나같이 일본인들의 생성이 한반도와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 가장 극단적인 것이 바로 자기네들의

고향이 한반도이거나 한반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곳으로의 진출이나, 심지어는 그곳의 복속도 고향 땅의 회복을 위한 당연한 목표일 수 있다는 억지 논리로 조작되기도 했다. 바로 이 점이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 ‘근친성 저주’의 핵심적 내용의 하나다(조정남, 〈일본의 민족문제〉 (교양사, 1999) 참조).

세계대전 패배에서 분연히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 한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번영을 유지해 오던 일본. 그 일본이 최근 들어 저 멀리 아득한 거리에서 허우적거리며 있어야 할 한국이 발걸음을 빨리하면서 자기들과의 거리를 차곡차곡 좁혀오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키 어려웠던 것이다. 이러한 한국에 의한 충격에 일본은 당황해했고, 이에 대해 보다 원천적이고 항구적인 한국과의 거리 설정을 모색하려 안간힘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긴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며 잃어버린 20년을 마감하고 새롭게 ‘전후총결산’ 작업의 마지막 종결자로 자처하고 나선 아베수상으로서의 최근의 한국 대법원 판결에서 그 구실을 찾으려 했고, 반도체 생산원료의 한국으로의 수출 통제라고 하는 화살을 날리는 과격한 행동을 주저하지 않았다. 일본으로서의 반도체 부품의 공급제한 조치를 통해 한국이 현재 국제적인 무역에서 일본을 앞서고 있는 IT분야의 성공이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한국 자체의 능력이 아니며, 한국은 일본의 기술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부품 조립국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내외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로 삼으로 하는 한편, 그동안 이 분야에서의 시장이탈에 실망하고 있던 자국민을 다독거림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IT기술의 선도국은 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려 하는 것이기도 하다.